



고객만남과
고객만남과
고객만남과



장거리인정과
장거리인정과
장거리인정과

‘토끼모자’ 쓴 은행장님...이런 모습 처음!



화상통화과
화상통화과
화상통화과



폼격 파괴과
폼격 파괴과
폼격 파괴과

KEB 함영주, 격의없는 새해 인사
KB 윤종규·IBK 김도진 현장 소통
NH 이대훈은 격오지 근무자 격려

요즘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 등 금융업계 최고경영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른바 ‘소통경영’이다.

소통 경영은 금융 리더들이 본사 집무실과 회의실이 아닌 영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만남에 적극 나서는 등 영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방적인 리더십이 아닌 영업현장의 업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영철학과 사업 구상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 외부에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애를 쓴다.

신년 들어 4명의 은행권 수장들이 일제히 ‘소통’을 강조한 현장경영에 나섰다. 지향하는 목표는 비슷했지만, 그들이 현장을 찾는 방식이나 메시지는 경영철학에 따라 ‘4인 4색’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고객만남과’다. 그는 2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목동 파리공원 지점 등 서울의 영업현장을 찾아가 고객들과 만났다.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행보이다.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야 함을 자신이 보여준 것이다. 윤 회장은 “KB에 가보니 너무 좋다”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고객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지역본부들 모두 방문했던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장거리 원정파’이다. 김도진 행장은 연초 거제, 통영, 진주, 여수, 순천 등 내륙 최남단 지역과 산업 단지가 있는 영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동거리만 1060km에 달하는 장거리다. 그는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년사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게 포용적 잭대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화상통화과’다. 3일 최동단 영업점 울릉군 지부, 최남단 완도군 지부 등 격오지 및 베트남 하노이 지점 등 해외 사무소와 화상통화를 갖고 지난해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영방침을 전달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격의없는 모습으로 나서 ‘직원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2일 본점 정문에서 요즘 유행하는 움짤이 있는 토끼 모자를 쓰고 즐긴다는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하고, 돼지 인형과 돼지가 그려진 떡을 선물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의 최고경영자들은 외부 노출을 가급적 피하고 뒤에서 조용하게 경영하는 보수적인 행보를 미덕으로 여겼다”며 “하지만 은행간의 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금융업계의 관행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리더들의 내부 소통은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키우는데, 이는 대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jjay@donga.com



케이뱅크, KT멤버십 혜택 카드 출시

케이뱅크가 주요주사인 KT와 손잡고 ‘케이뱅크×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사진)를 내놓았다. KT멤버십 제휴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멤버십 포인트 할인적용을 받는다. 전용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이면 최대 월 4만원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카드로 KT 통신요금을 자동으로 체하면 전용 사용실적에 따라 월 5~20%,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시사회 초대 새해 이벤트

삼성카드가 고객 일상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 까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삼성카드 1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 500명을 추첨해 영화 ‘극한직업’ 시사회 티켓 2매를 제공한다. 시사회는 22일 오후 7시30분 CGV 영등포 5개관에서 출연 배우의 무대인사와 함께 열린다. 또 31일까지 편의점 CU에서 삼성카드로 팔기 관련 행사상품 구매 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무료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황금돼지해, 고금리 상품으로 부자되세요”

KEB·IBK 등 고금리 특판상품 출시

시중은행들이 새해 재테크족을 겨냥한 고금리 특판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특판 상품은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판매 기간을 한정해 기존 상품보다 높은 금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31일까지 1조원 한도로 ‘황금드림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 적용

금리는 1년제 연 2.3%, 1년6개월에 연 2.4%다.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황금돼지 골드바와 아이스크림 모바일쿠폰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3월말까지 3조원 한도로 ‘IBK W특판예금’을 내놓았다. 정기예금(3개월, 6개월, 1년 만기), 중소기업금융채권(1년 만기), 단기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구성했다. 1년 만기 중소기업금융채권

의 적용 금리는 연 2.28%다. 주택청약저축 10만원 이상 가입, 적립식예금 가입 및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2건 이상, IBK카드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중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1월과 2월은 연말정산과 설 보너스, 성과급 등 직장인들에게 목돈이 생기는 시즌”이라며 “이 기간에 넉넉한 여유자금을 겨냥한 고금리 특판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KEB하나은행의 홍보모델 손승민이 31일까지 1조원 한도로 판매하는 ‘황금드림 정기예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KEB하나은행

유니버설그룹 “2019 블록체인 한국 일자리창출 컨퍼런스” 개최

세계기도정상회의 WPS 총재 이방석 목사 미국 총회장, 아시아 총회장 정주갑 선임, 유니버설코인 세계 5곳 동시상장 추진

- 부제 : 한국지자체&암호화폐업계 한국형 크립토밸리를 선포하라
- 주최 : 유니버설그룹 · 유니버설 국제 거래소 exus.global
- 사회 : 조영구 아나운서, 김경미 아나운서
- 축사 1 : 미국 총회장 이방석 (World Prayer Summit 총재)
- 축사 2 : 아시아 총회장 정주갑 (Georgia Korea Fellowship Asia 총재)
- 축사 3 : 자문위원장 위평환 (전 삼성전자 상무, 현 삼성전자 자문)
- 축사 4 : 상임고문 이정재 (전국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광주지대 자홍리클럽 회장)
- 초청가수 : 배진아, 한류 K-POP 정상 아이돌그룹
- 강사 : 국내외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국내 2인, 해외 2인)
- 참석인원 : 2000명 (세계 최대 암호화폐 행사, 유니버설코인 로얄 패밀리만 참석 가능)
- 행사 일정 : 3월 16일 (토) 오후 2~6시
- 행사 장소 : 서울 삼성역 코엑스 컨벤션센터
- 정품 : 1등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 2등 삼성TV 20대 / 3등 삼성세탁기 15대 / 4등 금화 10개 / 5등 삼성휴대폰 50대 / 6등 삼성노트북 30대 (전기자동차는 미국 투자자 기부)
- 행사 목적 : 4차산업혁명에 있어 한국 크립토밸리 신포를 통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와 암호화폐 실생활 사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을 추구하여 한국이 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야 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유니버설그룹의 컨퍼런스
- 방송사, 신문사 기자단 행사 참여, 제휴 & 제안 문의 : 이성모 관리이사 (HP) 010-5939-3853 (메일) lsm59390@naver.com

[유니버설그룹, 세계기도정상회의 WPS 총재 이방석 목사 미국 총회장, 아시아 총회장 정주갑 선임]

유니버설그룹(대표이사 김인기)은 세계기도정상회의 WPS(World Prayer Summit) 총재 이방석 목사(미국명 Moses Lee)를 미국 총회장으로, Georgia Korea Fellowship Asia 총재 정주갑을 아시아 총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주갑 아시아 총회장, 김인기 대표이사 일행은 1월 24일 출국해 TSL코인 미국 글로벌 국제 거래소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방석 총재를 만나 위촉장을 건네고 미국내 상원의원 등 정계계 인사들과도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 미국 총회장으로 선임된 이방석 목사가 총재로 있는 세계기도정상회의 WPS(World Prayer Summit)는 빌리 그래함, 팻 로버슨(CBN사장), 리처드 허버슨(美상원 원부), 객 해이포드(길 위의 교회 담임) 등 유력한 목회자들을 포함해 백인 목사만 미 전역에 5만여명을 거느리고 있을뿐 아니라 미국의 대선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대한 단체다.

이 단체가 주목받는 더 큰 이유는 미국의 6천만 복음주의자들과 8천만 가톨릭 신자들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4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부시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40일 금식기도 캠페인을 전개, “부시 당선되면

후에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힘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2006년 WPS 총재가 된 이방석 목사는 이후로 미국 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때 문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5년 9월 23일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백악관 방문시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 12명 가운데 포함되어 참석했다. 이방석 목사는 “앞으로 유니버설그룹과 TSL코인, 유니버설코인, 유니버설페이가 미국 전역에 확장되어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인기 대표이사는 “미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이방석 목사님과 정주갑 회장을 미국 총회장과 아시아 총회장으로 모시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유니버설그룹과 TSL코인, 유니버설코인, 유니버설페이의 최종 목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니 만큼 두분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블록체인 세계 No.1, 시총 1위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유니버설그룹 http://unv.global
- 유니버설 국제 거래소 http://exus.global
- 유니버설그룹 밴드 http://band.us/@universalgroup

" 전국가맹점 및 국가별 해외지사 모집"
전화 1833-5578

